

5/19 지난 수업 리뷰

## 강의 주제: 지난 시간에 나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 ※ 어떻게 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래의 학생 글 예시는 어제 수업에서 2학년 학생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다고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하지만 처음 쓴 글은 여러분도 보드시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서술되므로, 상상하는 즐거움이라는 작가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특히 소설 속의 작가가 등장인물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서술하지 않도록 글을 써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다른 작가 관찰자 시점의 매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학생이 처음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쓴 글>

덕수의 닭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 없이 호드기만 부는 모습에 덕수는 ~~화가 나~~ 점순네 집 닭을 단매로 때려 죽여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가 말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러자 덕수도 ~~화를 아가자 못하고~~ 말했다. "그럼 어때?"

점순이가 말했다. "뭐 이자식아? 누 집 닭인데?"

그러자 덕수는 ~~분하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 <수정한 글>

덕수의 닭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점순이는 눈 하나 깜짝 없이 호드기만 불었다. 덕수는 갑자기 달려들어 점순네 집 닭을 단매로 때려 죽여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가 말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러자 덕수가 화가 잔뜩 난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어때?"

점순이가 말했다. "뭐 이자식아? 누 집 닭인데?"

그러자 덕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빛이 흔들리다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질문1. 서술자를 소설 속의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바꿔서 소설을 써봅시다. (열 줄 이상 적어보세요.)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1)

점순이가 덕수의 등 뒤로 말을 건넨다.

"애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러자 덕수는 띠꺼운 말투로 "그럼 혼자 일하지. 떼거지로 일하나?"라며 툭 쏘아 붙인다. 하지만 점순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덕수의 뒤에 감자를 불쑥 내밀며 말하였다.

"너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먹어봐라."

그런데 덕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힐끗 쳐다보더니 거절하고 갔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2)

점순이가 아랫집 순돌이에게 주려고 감자를 굽고 있다. 다 굽고 순돌이에게 주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얼굴이다 할 말이 생각이 났는지 순돌이에게 다가간다.

“느그 집엔 이런 거 없지?” 점순이가 말했다. 순돌이는 본체도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점순이가 순돌이에게 막 욕을 퍼붓는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3)

아랫집 덕수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는데 점순이가 조용히 덕수에게로 가서 말을 걸었다.

“애!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런데 덕수는 무시하고 일만 한다.

그러자 점순이는 따끈따끈한 구운 감자 3개를 보여주며 “너는 이런 거 못 먹어 봤지?”라며 비꼬듯 말한다.

그러자 화가 난 듯한 덕수가 “됐어.”라며 안 먹는다고 손짓을 한다. 그러자 점순이는 금방 울 듯한 얼굴로 어깨를 들썩인다. 덕수는 눈치가 없는지 한참을 뒤돌아 보지 않는다. 3분이 지나고 덕수가 “아직도 안갔니?”라며 뒤를 돌아보고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러자 점순이는 창피한 듯이 빨간 볼을 가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점순이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닭장으로 가서 제일 날쌔고 힘세고 튼튼하고 닭장구역 1짚인 닭을 골라서 비실비실 웃는다. ~~점순이는 또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 2학년 학생들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 (4)

점순이는 부모님이 나가신 사이 감자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는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 감자를 굽는다. 빨갛게 물든 얼굴이 마치 사과 같다. 감자를 다 굽고 남주에게 간다. 그 때 남주는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다. 점순이는 남주에게 다가가 감자를 건네며 말한다. “애, 니네 집에는 이런 거 없지?” 남주는 화가 난 표정으로 바뀌며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받지 않는다. ~~크렇게 무안해진 점순이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안하기도 한다.~~ 다음날 점순이는 철없는 장난을 시작한다. 자신의 닭과 남주의 닭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시킨다. 저기 산에서 오던 남주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빨리 뛰어온다. 그리고 남주는 닭싸움을 말리며 점순이를 혼낸다. 다음날 또 닭싸움을 시킨 점순이는 남주가 오길 기다린다. 남주는 어제와 같이 점순이를 혼을 낸다. 점순이는 그 말을 듣더니 ~~화가나~~ 남주에게 욕을 한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남주가 닭싸움을 시켰다. 고추장을 먹인 남주의 닭이 처음에는 강한 기세를 보였지만 점점 갈 수록 잘먹고 잘 큰 점순이네의 닭이 더 썰서 남주의 닭이 끝내는 졌다. 다음날은 점순이가 아침부터 언덕을 올라갔다. 그 때 남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 뒤져보다가 언덕으로 갔다. 남주가 언덕에 도착해서 자신의 닭이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로 점순이의 닭을 죽였다. 남주는 ~~불안감에~~ 울고 말았다. 점순이는 그걸 ~~귀엽게~~ 보았다. 그 때 점순이의 엄마가 와 점순이와 남주는 동백꽃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점순

이가 남주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남주는 알겠다고 한다.

질문2. 서술자가 카메라맨처럼 남녀 주인공들의 말과 행동만을 관찰해서 들려주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 (1) 카메라 시점으로 볼 수 있어 재밌다.  
진짜 보이는 거 같아서 현실감 있었다.  
연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 생생하다.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있다.
- (2) 그저 보이는 그대로만 말하는 걸 읽으니 속마음을 추측해보는 재미도 있다.  
우리가 더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의 감정을 모르고 맨 마지막에 알면 자신의 생각과 달라 더 재밌다.
- (기타) 잘 모르겠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다.  
앞의 서술자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다.  
새로운 매력이 있다.  
재미있다.

“오늘 수업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내용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10줄씩 쓰는 게 좀 어려워요  
소설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없다.  
없음.